



“지구 살리기, 일상에서 친환경 실천해요”



광주시, 지구의 날 맞아 ‘30일간의 기후여행’ 실천 행동 진행 녹색교통·채식과 도시농업 등...영산강청, 기후변화주간 운영

지구 환경오염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전 세계 환경 운동 활동가들이 제정한 ‘지구의 날’이 올해로 51주년을 맞았다.

제 51주년 지구의 날을 맞아 광주지역 시민사회 단체들도 의제별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지구를 위한 실천에 나섰다.

광주시 지속가능발전협회는 20일 “오는 4월 22일 제51주년 지구의 날을 맞아 ‘30일간의 기후여행’을 슬로건으로 정하고 기후행동 5가지 의제를 바탕으로 30일 간의 실천행동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구의 날은 지난 1969년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발생한 원유 유출사고를 계기로 1970년 4월22일 정치인과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미국 전역에서

시작된 지구 환경 보호 행사가 출발점이다.

1990년 지구의 날 20주년을 맞아 세계적인 환경 운동 캠페인으로 발전했으며 각 도시에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을 결성, 지역의 현실에 적합한 주제로 캠페인을 진행해 오고 있다.

우리나라는 20년부터 지구의날을 기념하는 조직을 결성하고 행사를 개최해 오고 있고, 광주에서는 1990년 무등산 자락 중심사 입구에서 ‘무등산 켄안기’, 95년부터는 매년 녹색교통운동의 일환으로 ‘자전거 대행진’ 행사를 펼치는 등의 소규모 캠페인으로 시작으로 2000년부터 범시민 조직 차원의 다양한 이벤트를 개최해오고있다.

지속가능발전협회는 올해의 경우 코로나19 여파로 대규모 행사대신 지난 1일부터 ▲녹색교통 ▲에너

지전환 ▲채식과 도시농업 ▲자원순환 ▲탈석탄 등 5가지 주제를 시민들 대상 온라인을 통한 실천 인증 캠페인을 진행하고, 주제별 다양한 포럼을 개최해 환경오염의 위험성을 알리고 있다.

단체는 오는 22일에는 광주시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기념식을 열 계획이다.

이와 함께 환경부 산하 영산강유역환경청도 제 51회 지구의 날을 맞아 오는 28일까지를 기후변화주간으로 지정, 운영한다.

영산강청은 기후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온실가스를 줄이는 등 다양한 저탄소 실천 활동을 펼친다.

영산강청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저탄소 생활 습관 인증사진전을 열고, 쓰지 않는 전자제품 플러그 뽑기, 절약형 샤워기 사용, 대중교통 이용 등 인증 사진을 올리면 추첨을 거쳐 선물을 증정한다.

또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나만의 화분 만들기’ 체험활동 등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환경교육 등을 진

행한다.

지구의 날 당일에는 소등 행사, 잔반 없는 녹색식단의 날 행사, 장복습지 정화, 출퇴근 대중교통 이용 등의 활동을 펼친다.

류연기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은 “지구를 위한 행동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갖고 저탄소 생활 실천에 참여해달라”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7979센터·동일미래과학고 학생·기술자들, 재능기부로 ‘나눔·상생’

동행업체 업무협약...취약계층 지원

광주 동일미래과학고 학생들과 전문 기술을 가진 주민들이 ‘행복한 복지 7979센터’와 손잡고 취약계층을 돕는다.

20일 광주시 남구에 따르면 지난 19일 청사내에서 나눔과 상생을 위한 ‘행복한 복지 7979센터 동행업체 업무협약식(사진)’이 열렸다.

이날 동일미래과학고를 비롯, ㈜더심플·실로암 미용실·STYLE PC·㈜더크린·광명종합설비·성현종합상사·우리조명열쇠·유성종합장식 등 총 9곳이 업무 협약을 맺었다. 행복 동행에 함께하는 교육기관과 업체는 전문 기술을 활용해 지역 취약계층을 도울 예정이다.

동일미래과학고 학생들은 아·미용 봉사과 전기, 컴퓨터와 관련한 재능 기부 활동에 나설 예정이며 업체 8곳은 실내 살균소독과 방역·방제, 수도·보일러



라·페인트·방수공사, 철물과 공구 등 각종 자재 공급, 전기구 수리, 도배·장판·리모델링 등을 통해 취약계층을 지원키로 했다.

김병내 구청장은 “행복한 복지 7979센터와 동행업체간 유기적인 협력과 교류를 통해 지역사회 복

지 역량을 강화하고, 나눔과 상생이 어우러진 행복한 복지 남구를 더욱 촘촘하게 구축할 수 있게 됐다”며 “행복동행에 함께해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장애인 건강관리 강화...광주 서구 맞춤형 재활서비스 운영

광주시 서구는 20일 “가정의 달인 5월을 앞두고 지역 내 장애인들을 위한 다양한 재활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구에 따르면 구는 상무금호건강생활지원센터 내 재활치료실을 이용, 지역 장애인들의 재활을 돕고 있으며 재활 상담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다.

서구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소규모 예약제로 운영 중에 있다.

또 거동이 불편해 재활센터를 방문하기 어려운 저가 장애인을 대상으로 2명의 방문재활 전문인력이 세대를 방문, 대상자별 분류에 따른 재활과 보행운동, 낙상예방 등의 생활 중 안전관리 교육 서비스를 제공해 재가장애인의 건강관리에도 힘쓰고 있다.

상무금호건강생활지원센터 관계자는 “맞춤형 재활서비스 제공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재활



서비스 공백을 최소화하고 2차 장애를 예방함으로써 지역 장애인들의 지속적인 건강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지구온난화’로 건조해지는 한국

4월 상대습도 가장 낮아...최근 10년간 산불 59% 봄철에 발생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우리나라가 점점 건조해지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상청은 지난 40년(1981~2020년)간 상대습도를 10년 단위로 분석한 결과, 1980년대 71.3%에서 2010년대 67.4%로 낮아진 것을 확인했다고 19일 밝혔다.

상대습도는 대기 중에 존재하는 수증기량을 포화 수증기량에 대해 비율로 나타낸 것이다. 공기 속에 수증기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완전히 건조한 상태면 0%, 포화수증기압만큼의 수증기가 들어있다면 100%의 상대습도를 갖는다.

최근 10년(67.4%)은 2000년대 66.4%보다 소폭 상승했지만, 1980년대 71.3%나 1990년대 68.4%보다는 낮은 수준이었다.

기상청은 “우리나라는 지구온난화로 기온이 상승하는 추세이며 대기 중 전체 수증기량인 비습은 소폭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며 “이에 따라 우리가 체감하는 상대습도는 낮아져 대기가 건조해지는 양상을 띠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1981~2020년 상대습도를 월별로 보면 여름 장마철인 7월(79.9%)이 가장 높고 4월(60.8%)에 가장 낮았다. 1~4월은 60% 초반의 낮은 분포를

보였다.

계절별로 보면 봄철(62.6%)과 겨울철(62.7%)의 상대습도가 낮게 나타났다. 40년간 봄철 상대습도는 1980년대 66.4%, 1990년대 63.0%, 2000년대 60.3%, 2010년대 60.6%로 연도별 상대습도보다 감소 경향이 더 뚜렷했다.

최근 10년간 실외습도(화재 예방을 목적으로 수일 전부터의 상대습도에 경과시간에 따른 가중치를 댄 산출한 목재 등의 건조도를 나타내는 지수)가 35% 이하인 일수를 분석해보니 1월이 3.6일로 가장 많았고, 2월 3.1일, 3월 2.8일, 4월 2.2일이 뒤를 이었다. 이 기간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 중 59%는 봄철에 발생했다.

기상청은 “봄철은 다른 계절에 비해 상대습도와 실외습도가 낮고 풍속이 강해 산불이 많이 일어났다”고 분석했다.

/연합뉴스

양동시장을 쾌적하게...서구청, 폐기물 무단투기 강력 단속

광주시 서구는 20일 양동전통시장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폐기물 무단투기’ 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양동전통시장은 시장 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폐기물이 심야시간대에 무단 투기되고 있어 악취가 발생하는 등 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다.

이에 서구는 기온이 상승하면서 악취가 심해지는 봄철부터 단속요청 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단속반을 구성해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주 2회 이상 지속적으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서구청은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세

벽과 야간에 불법투기 단속을 실시해 총 7건을 적발하고 17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한편 서구는 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채소 뿌리나 껍질 등 재활용 불가능한 일반쓰레기를 음식물 쓰레기와 혼합배출하지 않도록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 등을 홍보하는 캠페인을 실시했다.

서구 관계자는 “단속 이후 불법투기되는 폐기물의 양이 눈에 띄게 줄어든 반면 종량제 봉투 사용량은 크게 증가했다”며 “앞으로도 양동전통시장을 찾는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함께 강력한 단속을 추진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산업현장 작업환경 개선 및 근로자의 건강을 지켜주는 호남기업 집진기

창사 32년 (주)YHB ECO

www.yhbeco.co.kr

미스트크리너

절삭유 미스트/오일미스트 제거
원심력 및 필터기술 적용
99.8% 집진 효율



더스트크리너

먼지, 분진, 각종 더스트 제거
카트리지 / 백필터 적용



전기집진기

산업/요식업소
연기·기름·미세먼지 98% 제거
생활민원해결!



호남지역 대리점 모집
무점포/무자본 판매하실 분

광주공장 영업부 :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10번로 115-33(안창동)
TEL : 062 - 953 - 2995
H·P : 010-2051-6401

서울영업본부 :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4 대륭테크노타운12가 501호 TEL : 02 - 2029 - 6400 ~ 3